

## 경력

### 국제회장 이 태섭

대한민국 서울 출신의 이 태섭 박사가 2003년 6월 30일-7월 4일까지 미국 덴버에서 개최된 제 86차 국제대회에서 국제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이 태섭 박사는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186개 국가와 영역에 140만여 회원들이 시력보존사업, 당뇨병 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 최대 봉사단체의 제 1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국내 우수기업의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 태섭 박사는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실명 퇴치운동을 위해 1억 4천 3백오십만 달러의 기금을 활용한 시력우선사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 시력보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명예방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명예방단체를 설립, 전문 의료진을 육성하고 대중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등의 유례없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태섭 박사는 1975년 서울 세종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한 이래 28년 동안 클럽회장, 지대위원장, 지역위원장, 지구총재, 복합지구 의장 등 국제협회의 요직을 맡은 바 있으며, 국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레시브 멜빈 존스 동지이기도 한 이 태섭 제 2 부회장은 그의 봉사경력을 인정 받아 협회로부터 국제회장상, 친선대사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프로그레시브 멜빈 존스 동지인 부인 사이에 2명의 아들과 3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 2명의 아들과 배우자 전원이 멜빈 존스 동지이다.